

## 격려사



황인성  
(농수산부 장관)

친애하는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

오늘 제 4 회 양돈인대회에 참석하여 평소에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신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펍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들께서 특히 오늘 이 대회에서 자율적인 생산조절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이와같이 뜻깊은 모임을 가지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축·수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가 도시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도 쾌적한 삶의 공간이자 나라발전의 기틀로써 가꿔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농어촌종합대책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추진을 비롯해서 투자를 늘려감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 농축산업과 농어촌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

특히 이자리를 함께 하신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이제 우리의 축산업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축산물의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70년대에는 농가소득 중 축산소득이 불과 3%에 지나지 않았었다마는 현재는 20%나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축산소득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속에서도 아직도 축산물의 가격이 되풀이 하여 지나치게 큰 기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축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전체 물가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생산조절, 수매비축, 유통개선, 또한 소비확대등과 아울러 다각적인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돈분야에 있어서는 수급안정에 기초가 될 생산조절을 제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85년 4월부터 규모가 큰 양돈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아까 소개해 올린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도적인 새로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제도 시행에 양돈농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예상되었던 양돈불황을 슬기롭게 해소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난 만큼 부업농가의 양돈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돼지사육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6월이후 다시 모든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돼지고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아져서 돼지값이 매우 불안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하여 스스로 생산조절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데본인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우 뜻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결의가 전국의 양돈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나라 전체 육류소비량의 절반이상을 생산 공급하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역군이자 식량공급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양돈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수급 전망에 따라 사육두수를 조절해 감은 물론, 이밖에도 우량가축의 사육, 사양기술의 향상, 질병발생방지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손으로 수급의 안정을, 나아가서 더욱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동용회장을 중심으로 당면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협동체제를 더욱 공고히 활성화 해 나감으로써 양돈업의 착실한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